

'25. 9. 12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테

○ 韓,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범에 구속영장 신청

- 9.3 언론은 경찰이 최근 “신세계면세점 등을 폭파하겠다”는 협박글을 SNS에 게시한 30대 남성에 대해 공중협박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며, 구체적인 동기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
- ※ 최근 사제폭탄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30대에 대해 벌금 600만원 선고

○ 파키스탄, 반군의 자살폭탄 연쇄 테러 지속 발생 中

- 9.3 언론은 발루치스탄 해방군(BLA)^{↑ Balochistan Liberation Army}을 비롯한 파키스탄 반군이 쏘 지역에서 테러를 지속 자행하고 있으며, 최근 기념식장·軍 시설을 대상으로 한 자살폭탄 테러가 하루에 3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고 보도
- ※ 이와 관련, 파키스탄 정부도 軍 병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진압 작전으로 맞서고 있어 유혈사태가 지속 잇따르는 등 내부 테러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부언

○ 韓 경찰, 日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공조수사 출장단 일본 파견

- 9.9 언론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‘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’과 관련 일본 경찰청에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공조수사 출장단을 파견,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공조·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
- ※ 경찰은 협박 메일·팩스가 해외에서 발송된 사실을 확인,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발신자 추적 中

중 동

○ 이스라엘, 무장괴한이 버스 승객을 향해 총기 난사로 4명 사망

- 9.8 언론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북부 라모트 교차로 인근에서 괴한 2명이 버스 승객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4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했으며, 이스라엘 방위군이 용의자들을 현장에서 제압했다고 보도
- ※ 보안당국은 테러리스트가 서안지구 내 거주 중인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발표

미 주

- 美, 카리브해서 베네수엘라 마약운반船 타격, “테러조직원 11명 사살”
 - 9.3 언론은 미국이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한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매 조직 「트렌 데 아라과」의 마약운반船을 카리브해 일대에서 공격하여 테러리스트 11명을 사살하였다고 보도
 - ※ 美 「트럼프 행정부」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 트렌 데 아라과·태양의 카르텔,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 등 9곳을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

유럽

- 英, ‘테러조직’ 지정 친팔레스타인 단체 지지자 425명 체포
 - 9.7 언론은 런던에서 親팔레스타인 단체인 ‘팔레스타인 행동’을 ‘테러단체’로 지정한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경찰은 시위 가담자 중 최소 425명을 테러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이 단체에 가입하거나 단체 행동에 참여하는 행위, 일부 공개적인 지지 표명도 범죄로 분류돼 최고 14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부언
- 프랑스, 대사관·관공서 테러 모의한 17세 소년 체포
 - 9.7 언론은 프랑스에서 외국 대사관과 관공서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17세 소년을 체포했으며, 자택에서 ISIS에 대한 충성서약서와 파리 주재 외국 대사관을 표적으로 테러를 모의한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
 - ※ 올해 프랑스에서 미성년자가 테러 모의 사례를 14건 발견했으며, 당국은 최근 미성년자의 테러 연루에 대하여 경계를 강화 中

아프리카

- 나이지리아, 보코하람 공격으로 최소 63명 사망
 - 9.7 나이지리아 동북부 보르노州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마을 주민 등 63명이 사망했으며, 해당 州 주지사는 軍 병력으로는 해당 상황을 통제하기 역부족으로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발표

역사속 테러사건

駐인도네시아 호주대사관 차량폭탄테러

- '04.9.9 자카르타 소재 호주대사관 대상 자살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, 9명 사망·180여명 부상 및 대사관 건물 일부와 차량 10여 대가 파괴

* 폭발 파편이 주변 500m까지 비산한 대규모 폭발이었으며, 인근 그리스·중국 대사관 건물도 일부 피해



《테러 후 현장 모습》

- 경찰은 '제마 이슬라미야'(JI)가 자행한 발리테러('02)·매리어트호텔 테러('03) 방식과 유사하다며, 공격 배후로 JI를 지목
 - 사건 이후 JI는 “그간 미국에 협조해온 호주가 이라크에서 철군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”라는 내용을 과격 이슬람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사건 배후를 자처
- ⇒ 同 사건은 외교 공관은 상징적 목표물이자 취약지점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고, 이후 △물리적 보안(장벽·블라드) △인적 경비(무장요원·현지 협력) △서방국가 공동 보안 가이드라인 구축 계기

테러 상식

< 제마 이슬라미야(JI : Jemaah Islamiyah) >

- **(결성)** '40년대 네덜란드 식민통치에 저항하던 급진 이슬람운동에서 기원, 독립 이후 극단주의자들이 동남아 전체를 아우르는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'93년 결성
※ 테러단체 지정 : UN·美·호주('02.10월), 英('02.11월), 캐나다('03.4월)



- **(활동지역)** 인니·말레이시아·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
- **(활동수법)** 미국·서방시설 겨냥 폭탄테러, 군·경찰 대상 무장공격
- **(특징)** △'02.10월 발리 테러 등을 자행하면서 '동남아 알카에다'로 불리며 가장 위협적 테러조직으로 평가되었으나, 정부 소탕작전으로 크게 약화
- **(주요테러)** △'02.10월, 발리 나이트클럽 등 연쇄 폭탄테러(호주인 88명 등 202명 사망)
△'05.10월 발리 소재 식당 등 3곳 연쇄폭탄테러(호주·일본인 등 26명 사망)
△'09.7월 자카르타 매리어트·리츠칼튼호텔 연쇄자폭테러(57명 사망)

※ 현재 JI은 △주요 지도자 제거 △알카에다와의 연결 약화 △IS 부상으로 경쟁 심화 등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2021년 인도네시아 국가대테러청(BNPT) 추산: 200명 내외 핵심 활동가 잔존